



한국 대학의 정체성과 기초학문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근래 우리나라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기초학문 또는 순수학문의 위기'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국내 4년제 대학은 거의 대부분 학부제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이 학부제가 오히려 학문별 서열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계열 내에 있는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등 다양한 과목 중에서 '경제학'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영', '무역', '회계' 등 실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응용학문 분야에만 학생들이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리학, 수학, 화학 등 자연과학 계열의 기초과학은 의학, 공학, 약학 등의 응용과학에 밀리고, 철학, 문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 부문 기초학문 영역은 법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의 응용학과에 밀리고 있다.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응용과학이 존재할 수 없는 데도 응용학문의 효용성이 기초학문의 정통성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대학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전인적 인간형성은 그 허울만 남았다. 지성과 지식, 이상과 현실, 이론과 행동의 조화는 무색해지고, 실용적 측면만 비대하게 발달한 기능적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학의 도서관에 학생이 가득 차 있어도 학문적 분위기는 적다. "대학에서 최선의 교육이란 직업적으로 생산력을 갖추도록 도와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사려 깊고, 보다 탐구적이고,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어느 선현의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지역과 사회, 나라와 민족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의학'에서 '철학'으로, '건축학'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순수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적 탐구가 수반되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은 경제논리에 입각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순수

학문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수요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순수학문의 자연도태에서 오는 '윤리의식', '사회적 균형'의 상실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실용성과 외부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정부와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대학의 교육풍토와 결합하여 기초학문이 자연 도태하는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학 정체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 또는 순수학문의 발전 없이는 합리적인 사고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 독일의 대학가에는 "기초학문이 쇠망하면 일반 대학가가 문을 닫게 되고, 대학에 이상이 생기면 사회가 병들며 인간을 위한 학문의 발전은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가 살아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다음에 세계의 지성을 향해 던진 말이기도 하다. 곧 인문학을 비롯한 순수학문에 그 철학적 뿌리를 두지 않은 무책임한 과학기술 응용은 인간성의 궤멸로 이어진다는 신랄한 비판이 깔려 있다. 성숙하지 못한 실용주의 노선은 인류의 인권을 잊어 버리기 쉽고 결국 인류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학문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응용학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사회의 공과를 균형있게 배분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공존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구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언제나 다양해야 하며 이런 다양한 구조에서 서로가 비판과 견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순수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는 대학의 제도적 측면의 개혁과 정부의 인식변화를 통해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은 의도적으로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학제는 기초학문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학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기초학문 계열을 통합한 '기초학문대학'의 가능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문대학'을 학부의 주축으로 삼고, 응용학문 분야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위기를 시장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시적 성과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으로 인해 응용과학에 비해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는 응용과학의 발전도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용주의'를 절대화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사회에 허황된 물질적 발전만을 부를 수도 있다. "시인은 궁핍한 시대에 살아야 한다"는 독일의 시인 뢰넬린의 경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만큼, 인류는 나날이 과학과 산업 기술의 진보와 함께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과학의 진보와 발전은 수많은 응용학문을 생성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틈엔가 대학이 지향하는 학문적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정신 세계의 산물인 문학, 예술, 철학, 그리고 인간 진보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제 도서관 한켠, 먼지 낀 서재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이다. 기초학문의 결핍이 빚어낸 후유증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